

1. 흡연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흡연 실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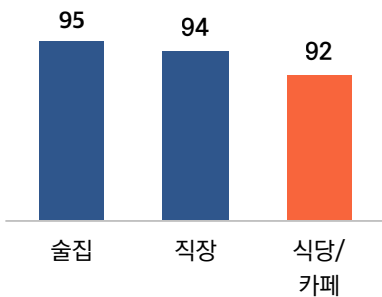
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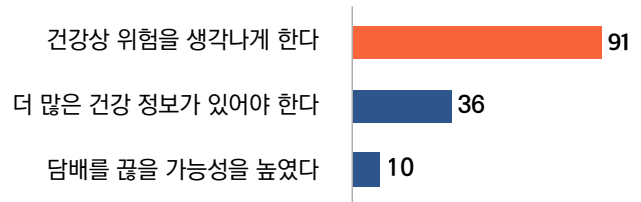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 국민 절대 다수(94%), ‘실내 흡연 전면 금지 필요하다!’

-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, 우리나라 국민은 실내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해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, ‘술집’ 95%, ‘직장’ 94%, ‘식당/카페’ 92% 등 모두 90%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.
- 또한 흡연자들은 담뱃갑에 명시한 경고 그림으로 인해 91%는 ‘건강상의 위험을 생각나게 한다’고 응답했지만, 반면에 그 경고 그림으로 인해서는 10%만 ‘담배를 끊을 가능성을 높였다’고 응답해 담뱃갑의 경고 그림은 흡연 위험 인식을 높이지만 금연을 결심하게 하는 효과는 낮았다.

[그림] 실내 유형별 담배 사용금지 ‘찬성한다’ 응답 (일반 국민)



[그림] 담뱃갑 경고 그림 인식(흡연자**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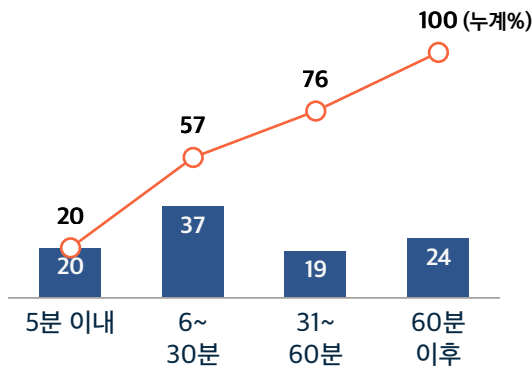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한국건강증진개발원, ‘국제 담배규제정책 평가(ITC) 한국 프로젝트 2기 1차 조사 보고서’, 2021.4.19.(전국, 19세 이상 남녀 성인 4,795명, 이메일 조사, 2020.6.18.~28)

** 담배의 종류 중 일반 필연형 흡연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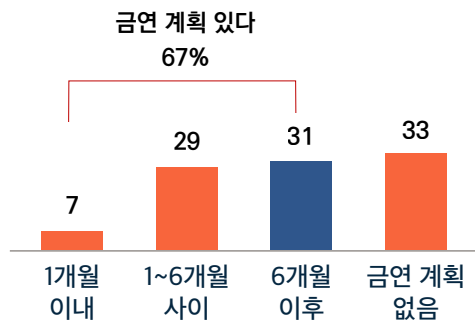
● 매일 흡연자, 절반 이상이 ‘기상 후 30분 내’ 흡연!

- 매일 흡연자가 기상 후 처음 담배 피우는 시간대를 조사하였는데, 기상 후 ‘5분 이내’ 20%, ‘6~30분’ 37%, ‘31~60분’ 19%, ‘61분 이후’ 24%로 응답했다. 흡연자의 57%가 기상 후 ‘30분 이내’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현재 매일 또는 매주 흡연하는 흡연자의 67%는 금연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는데, ‘1개월 이내’가 7%, ‘1~6개월 사이’ 29%, ‘6개월 이후’ 31%로 나타났다.
- 반면 금액 계획이 없는 흡연자는 33%로 3명 중 1명 꼴이다.

[그림] 기상 후 첫 흡연 시간(매일 흡연자** 대상)



[그림] 현재(매일+매주) 흡연자**의 금연 계획



*자료 출처 : 한국건강증진개발원, ‘국제 담배규제정책 평가(ITC) 한국 프로젝트 2기 1차 조사 보고서’, 2021.4.19.(전국, 19세 이상 남녀 성인 4,795명, 이메일 조사, 2020.6.18.~28)

** 담배의 종류 중 일반 필연형 흡연자